

사회

“교통사고 줄이자” 아무리 강조해도...

작년 사고 발생률 광주 1위 '오명'

인구 10만명당 2275건 자동차 1만대당 579건

지속적인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광주가 전국 시·도 가운데 인구 및 차량 대비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순천(48명)과 나주(48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 전국 시도별 교통사고 현황

Table with columns: 시도, 인구 10만명당, 차량 1만대당, 사망자수. Rows include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기타.

■2010 광주, 전남지역 교통사고 현황

Table with columns: 광역단체, 발생건수, 사망자(명), 부상자(명). Rows include 광주, 전남, and sub-regions like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남구,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원도, 진도, 신안, 목포, 여주, 순천, 나주, 광양.

한결과 시민들의 무질서한 운전 및 보행 습관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교통사고 빈발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시민교통의식 제고와 보행 환경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반면 전남은 10만명당 교통사고 발생이 1715건으로 14위였으며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도 287건으로 최하위였다.

부상자는 광주가 5만3332명, 전남이 5만554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8.20%(4.45명), 0.56%(283명) 증가했다.



2일 김대중 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1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있다.

물품구입비 부풀려 술·밥에 전별금으로

전남경찰, 8000만원 횡령 나주시 공무원 등 무더기 적발

전산용품 납품업체와 짜고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빼돌린 수천만원의 공금을 회식비나 전별금으로 쓴 나주시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명과 K납품업체 대표 B(41)씨 등 9명을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횡령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공무원 C(45)씨 등 46명에 대해서는 기관 통보할 방침이다.

뒤 B씨에게 세금 10~20%를 공제 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횡령한 공금을 부서 회식비나 전별금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전자정부 도입으로 소모성 사무용품의 사용 빈도가 낮아지고 있는데도 예산은 매년 비슷하게 책정된다는 점을 악용, 허위 예산 집행 명세서를 만들어 공금을 빼돌렸다.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hakwon (한빛고시학원) featuring the slogan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and details about public servant exam preparation.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hakwon (한빛고시학원) featuring the slogan '합격도 전략이 필요하다!' and details about exam preparation.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hakwon (한빛고시학원) featuring the slogan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and details about exam preparation.

광주 '기업형 보도방' 적발 유사 성행위 업주도 체포

여성 도우미들을 유혹기에 소개해주거나 남성들과 유사 성행위를 앞선 해 돈을 챙긴 조직폭력배 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며 여성 도우미들을 유혹주점에 앞선해주고 부당이익을 챙긴 김모(37)씨와 조직폭력배 채모(24)씨 등 13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으로 드러났다. 광주서부경찰도 이날 남성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를 앞선한 업주 이모(37)씨와 성매매 여성 박모(25)씨 등 5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임용 탈락 불만 학교 방화 30대 중형

광주지법, 징역 3년6월

광주지법 형사6부(김응배 부장판사)는 2일 교사 채용에서 탈락한 데 불만을 품고 학교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등)로 기소된 최모(35)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 주월동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불을 내 1억400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4일 후 이 학교 운동장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르고, 앞선 2월 28일에는 자신이 전일제 교사로 재직했던 충북 보은군 한 초등학교 교장 관사에 불을 낸 혐의도 받았다.

만취 수련의 병실 침입

女환자 몸에 마약성분

전북의 한 병원 수련의사가 만취 상태로 20대 여성환자가 누워 있던 병실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환자 몸에서 항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와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추상적 이유로 아파트 불허 위법”

광주지법

자치단체가 법적 흠결이 아닌 난개발 우려나 방지 등 추상적 이유를 들어 아파트 건설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정경현 부장판사)는 2일 D 건설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불가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인 불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수시는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난개발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안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난개발 방지라는 추상적인 공익보다는 사업계획 승인신청 후 보완과정을 거쳐 지구단위 계획결정 등을 신청하면서 75여원을 들인 D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만취 여성 10분간 전라로 거리 활보

상대말

○만취한 40대 여성이 전라의 상 대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경찰서로 향했다. ○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A(여·48)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5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모 음식점 앞에서 나체로 10여분간 인근을 돌아다니며 이를 지켜본 박모(여·65)씨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평소 술을 즐기던 A씨는 이날도 아침부터 혼자 술을 마시다가 만취상태가 됐는데, 경찰에서 감싸고 “옷을 벗고 때린 것은 기억하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회설수술.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예배하지 않는다”

노인폭행 목사 구속

군산경찰은 2일 예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90대 노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목사 김모(6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30일 군산 모 노인 선교회에 입소해 요양 중인 A(여·91)씨가 피곤해 새벽

예배를 하지 않자 나무막대기로 A씨의 양쪽 발바닥을 20여대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고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목격자 등 20여명의 관련자 조사를 거쳐 김씨를 구속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만취 여성 10분간 전라로 거리 활보

상대말

○만취한 40대 여성이 전라의 상 대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경찰서로 향했다. ○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A(여·48)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5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모 음식점 앞에서 나체로 10여분간 인근을 돌아다니며 이를 지켜본 박모(여·65)씨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평소 술을 즐기던 A씨는 이날도 아침부터 혼자 술을 마시다가 만취상태가 됐는데, 경찰에서 감싸고 “옷을 벗고 때린 것은 기억하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회설수술. /양승희기자 yang@kwangju.co.kr